

Market Index / 14일

코스피지수 ▲ 2067.40 +22.79	코스닥지수 ▲ 641.46 +8.51	유가(WTI, 달러) ▲ 54.70 +1.15	환율(원)	1USD 1205.63 100¥ 1113.64	살매 1164.17 팔매 1075.34	1EUR 1332.34 1CNY 176.07	살매 1280.36 팔매 159.31
---------------------------	-------------------------	------------------------------	-------	------------------------------	--------------------------	-----------------------------	-------------------------

과잉공급 숙박업소 공멸 위기감 확산

분양형호텔 등 객실 우후죽순 난립-공실-가격 하락 악순환 관광호텔 이용률도 2014년 76-80%에서 작년 60%대 하락

관광호텔과 일반숙박업인 분양형호텔, 농어촌민박 등 숙박업소 과잉공급에 따른 출혈경쟁이 심화되며 이렇다 공멸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정체되는데 과잉공급된 숙박시설이 커지고 있다.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정체되는데 과잉공급된 숙박시설이 커지고 있다.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정체되는데 과잉공급된 숙박시설이 커지고 있다.

2만9699실, 농어촌민박 1만2409실이 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제주 하루 체류관광객(2018년 17만6000명 기준)을 감안한 필요객실을 4만6000실로 추정하고 있다.

객실 가동률이 떨어지자 업계에선 반방으로 늘릴 수 없어 판매가격을 내리면서 4-5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적잖다. 공급과잉이 불러온 결과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겨냥해 2015-2016년부터 앞다퉈 선보인 분양형호텔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단체객이 급감하자 호텔 앵 등을 통해 최저가 경쟁에 나선 것도 한몫을 하고 있

다. 호텔 앵을 보면 가격이 수시로 달라지긴 하지만 분양형호텔이 1박에 4만~5만원대(조식 미포함) 가격이 흔하고, 이는 관광호텔 객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관광호텔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관광호텔·가족호텔·호텔 등 도내 84개 호텔의 객실이용률은 61.9%, 판매객실 평균요금은 12만5900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이용률 65.7%, 평균요금 8만1600원, 서귀포시가 이용률 62.0%, 평균요금 18만1900원이다. 2014년 제주시 이용률 80.4%, 평균요금 9만4200원, 서귀포시 이용률 76.5%, 평균요금 21만270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이용률과 요금 모두 눈에 띄게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서귀포시 소재 A관광호텔 관계자

는 "2014년 객실가격이 1박에 13만 원대에서 지금은 6만~7만원대까지 떨어졌다"며 "정상가격을 받을 땐 60%대 가동률이던 건달만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워낙 떨어져 그보다 가동률이 높아진다 해도 경영난이 더 심화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제주시 소재 B관광호텔 관계자는 "4-5년 전 주말 17만원 안팎이던 객실요금을 지금은 12만~13만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투숙객들이 앵에 미끼상품으로 나온 썬 객실을 확인하곤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생긴다"며 "소비자들의 호텔 앵을 통한 가격비교가 보편화되면서 출혈경쟁을 벌이게 되고 수익구조가 악화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주택사업경기 10월엔 미소짓나

HBSI 전월 대비 24.2p 상승 전망치 6개월 만에 70선 회복

제주지역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10월 전망치가 오랜 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기준치(100)에 모자라며 얼어붙은 주택경기시장의 현실을 반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4일 발표한 '2019년 10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10월 HBSI 전망치는 72.0으로 지난 4월 71.4 이후 6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했다. 특히 40-60대선을 오가던 실적 및 전망지수는 증가폭을 키우며 냉랭한 제주지역 주택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감돌고 있다.

올해 HBSI 전망치 가운데 2월이 82.6으로 가장 높다. 한달 앞선 1월 전망치도 42.8에 그쳤고 이후 2월에 급증한 이래 3월 64.0, 4월 71.4로 롤러코스터를 타며 불안한 건설경기 심리를 대변했다. 이어 5월 57.1, 6

월 54.5, 7월 54.1, 8월 47.6, 9월 47.8로 바닥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10월 들어 도내 건설업체들의 분위기가 다소 살아나며 한달 사이에 전망지수는 24.2p나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8에는 부족하지만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전망은 다소 낙관하는 눈치다.

10월 전국 HBSI 전망치는 83.5로 전월대비 21.8p 상승했다. 서울·인천·세종·대전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증폭됐다. 국지적 개선 기대 효과와 전월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원·충청·전북·경남 등 지방 주택사업경기 약화는 장기화되면서 개선시기는 미지수다.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지표인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소속된 500개 이상의 회원사가 조사 대상이다. 지수 85미만은 하강국면, 85-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국면으로 각각 판단한다.

백규탁기자 haru@ihalla.com

"환경면 바람축제 놀러오세요" 오는 19-20일 페스티벌 개최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환경면 신장봉차해안도로 일대에서 제주의 바람을 주제로 한 지역 축제 '2019 환경면 바람축제(우풍당당 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페스티벌에서는 환경면의 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달릴 수 있는 여풍당당 레이스와 온 가족이 함께 바람을 체험하고 지역의 보물을 찾아 즐기는 패밀리 윈드런 프로그램, 015B 노을 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이상민기자



제주 LNG 인수기지 관제실 한국가스공사는 제주 액화천연가스(LNG)본부는 11일부터 제주북항발전소에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시 매월을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 인수기지 관제실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하향 안정세

평균 전세가격 1억7100만원 작년 동기대비 2000만원 줄어 올 3분기 도 가운데 가장 높아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제주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억7100만원대로 나타났다. 특히 분

기별로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이 빠지는 등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부동산정보서비스(주)직방이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를 통해 전세시장 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3분기(6-9월)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억7108만원이다.

이는 올 2분기(4-6월)의 1억8295만원에 견줘 1187만원(6.5%)이 빠졌고, 1분기(1-3월)의 1억7981만원보다는 873만원(4.9%)이 적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인 3분기 1억9227만원에 비해서는 2119만원(11.0%)이 낮다. 최근 가장 높았던 지난해 2분기의 2억4260만원에 대해서는 7152만원(29.5%)의 차이가 발생한다. 계절적·

지리적·브랜드 등의 변수가 있어 가격 대비가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제주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의 올 3분기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도(道)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7위로 부산(1억8643만원)·대전(1억8248만원)·광주(1억7061만원)와 비하며, 인천(2억608만원)·대구(2억2562만원)·경기(2억4034만원)와도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서울(4억618만원)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백규탁기자

제주 상·하위 소득격차 전국서 3번째 커

상위 0.1%가 하위 10%보다 2449배 더 벌어 격차 큰 지역

제주지역이 상위 0.1%와 하위 10% 간 연소득 격차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상위 0.1%의 연소득은 25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35억6000만원)과 광주(31억8000만원), 강원(26억6000만원), 울산(25억80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이다. 상위 0.1%가 벌어들이는 연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19억원)이었다. 이어 세종(19억1000만원), 전남(19억4000만원) 순으로 낮았다.

상위 1% 소득을 따졌을 때도 제주지역은 비교적 상위권에 속했다. 상위 1% 연소득 순위에서는 서울이 9억1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

어 부산(6억7000만원), 광주(6억6000만원), 경기(6억4000만원), 인천(6억3000만원)의 순이었다. 제주지역은 6억2000만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하위 10%로 기준을 변경하면 제주지역 소득 순위는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제주지역 하위 10%의 연소득은 1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부산과 광주를 비롯한 10개 지역이 130만원으로 공동 1위를 형성했고,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5개 지역이 120만원, 세종이 11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상·하위간 소득 격차가 큰 지역으로 분류됐다. 상위 0.1%와 하위 10% 소득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상위 0.1%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3056배에 달했다. 제주지역은 상위 0.1% 소득이 하위 10% 소득보다 2449배 많아 들쭉날쭉한 전국에서 세번째로 컸다. 서울에 이어 소득 격차가 큰 지역은 광주(2463배)였으며, 가장 작은 지역은 전남(1456배)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 서귀포 강정동 2100㎡(자연녹지(과))

호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호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전)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 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 80㎡ 3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 674㎡/매가 50㎡ 5억
- 해안동 생관안야(목장) 맹지 28,842㎡ 6억
- 아라동기차촌 1090㎡ 9.24억
- 아라동기차촌 1090㎡ 9.24억
-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점 168㎡ 3억

- 애월수신봉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전 대지조성 481㎡ 6.59억원
- 함림상명 조림식주택 60㎡/대 430㎡ 1.5억
- 판포 바다경관 과 자연녹지 3028㎡ 6.49억원

※ 애월남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

- 충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9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9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
-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장의사

<서귀포 천주교묘지 책임 총관리>

택일, 토신제 / 축문, 제관, 제물 중형, 소형, 차량안비 / 향상 주, 야 대기 장례일체(매장·화장·이묘) 방 문 상 담 환 영

사무실 : ☎ 064) 732-5200, 762-5316
H · P : 010-3696-3172, 010-8661-6560

약도: 정방목포, 에이즈주유소, 시민장의사, 버스거리, 일호광장, 남원, 도남오거리, 터미널방면, 중앙로방면, 버스정류소, 광양로터리, 문예회관, 중안로방면

양복점 제일사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이도1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6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콤비	60만	30만
고급	"	40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5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1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영업시간: AM 9시 ~ PM 9시 일요일은 쉽니다.

NAVER 제일사 검색

제주대방면, 화북방면, 신제주방면, 료포, 남원, 봉림남부지점, 도남오거리, 제주시청, 버스정류소, 광양로터리, 문예회관, 중앙로방면, 터미널방면